

인터뷰

영국에 증가하는 갈색계시장

— Peter Lewis 씨와 인터뷰 —

한국의 양계산업 시찰차 방한하여 지난 11월 14일 본회를 내방한 Peter Lewis씨는 영국의 Haper Adams College 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닭에 대한 NDP 학위와 토끼에 대한 NDR 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Tetra Poultry 농장의 수출책임자로 있다.

■ 현재 영국에서의 산란계 시장은 어떠한가?

■ 산란종계는 약 650,000수 그중 90%가 갈색종계이고 백색종계는 10%인 6,000여 수에 지나지 않는다.

채란계 CC의 분포를 보면 갈색산란계가 95%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년에는 99%로 증가할 전망이다.

이렇게 갈색계가 증가하는 이유는

① 백색계에 비하여 질병저항력이 강하여 육성율, 생존율이 높다.

산란계 중 백색계는 월 도태폐사율이 1~1.2%인데 비하여 갈색계는 월 0.4~0.5%에 지나지 않는다.

② 근년에 와서 갈색계의 산란율이 크게 향상되어 백색계와 맞먹는 산란을 한다.

③ 난중이 백색보다 평균 2~3g 높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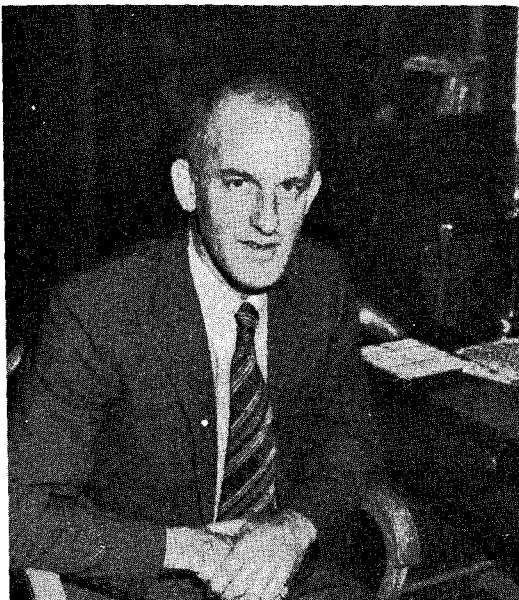
④ 난각질이 우주하여 파란율이 낮다.

⑤ 사료는 1일 5g정도 더 먹으나 이것은 난중이 큰 것으로 커버가 된다.

⑥ 특히 부화장에서 갈색계는 거의 다 날개감별이므로 감별료가 적게 들고 항문감별시에 병아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이점이 있다.

⑦ 백색란과 갈색란의 생산원가가 동일하고 시장소매가격도 같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갈색란을 선택하기 때문이다.

현재 영국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 갈색계통으로서는 테트라(Tetra SL) 하이색





- 스브라운, 와렌, 하바드 코멧트, 하코, 바브콕 B-380, 로스부라운 세이버 585 등이다.
- 문) 영국정부에서는 북부지방인 스코틀랜드 지방을 가금질병 격리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?
- 답) 그렇다. 영국의 북부인 스코틀랜드지방은 법으로 보장된 질병격리 지역이다. 따라서 남부인 잉글랜드지방에서 생산되는 닭고기(Broiler meat)나 식란(Table egg)까지도 북부의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반입될 수 없다. 모든 가금육종회사들이 대개 영국북부지방에 있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.
- 문) 테트라농장이 있는 지역에서의 종계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십시오.
- 답) 꼭 이렇게 해야한다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. 대개 체택하고 있는 종계예방접종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.
- 뉴캐슬접종
- 3 - 4주령 HB₁,
8 - 10주령 라소타백신
- 18주령에 기름을 기제로한 사독백신 (Oil Baced Emulsion ND백신)을 주사한다. 이 백신은 조직내에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18주령에 한번 주사하면 노계처분시 까지 다시 재접종 할 필요가 없다.
- 1일령에 마렉백신
3 - 4주령에 H₁₂₀ IB백신
12주령에 H₆₂ IB백신하고 다시 타이터 측정하여 필요하면 16 - 17주령에 다시 재접종 한다. 10주령에는 AE접종한다.
- 그리고 모든 부로일러 종계는 14 - 18주령 사이에 EDS 예방접종을 한다. 산란종계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EDS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.
- 다행히 우리 농장의 테트라SL에서는 EDS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접종은 불필요하다. 종계에서 EDS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검머셜 병아리에서의 EDS를 방어할 수는 없다.
- 영국에서는 EDS 양성종계에서 나온 병아리는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.
- 문) 영국의 테트라SL의 능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죠?
- 답) 테트라 갈색계는 처음 항가리에서 개량된 닭으로 현재 영국에 진출하고 큰 성과를 얻고 있는 닭으로 그 능력은 다음과 같다.
-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1일 사료섭취량 | 110 - 115g |
| 평균난중 | 60 - 62g |
| 생존율 | 94 - 96 % |



Tetra SL